

“점검인의 자세”

하는 일의 양이 늘어났다. 금방 알아볼 수 있듯이 특수건물이 75년 당시 11,258건에서 '88회계년도 말 예상이 36,000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일 뿐이고 실제로 업무량이 얼마만큼 늘었는가를 정확하게 평가 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13년전과 무엇이 어떤 모습으로 얼마만큼 달라졌는가는 누구나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담당인원이 많아진다면가 아니면 하는 방법이 개선되어 부족한 만큼 감당을 해주어야 할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

딱 부러지게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묘방이 없으니 답답한 심정이다.

할 일이 많아졌으니 얼마 만큼은 모른 채하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고, 한편으로는 큰 일이다 싶은 걱정이 들고, 이렇게 전전공공하다 보면 대충 대충 넘기자는 쪽으로 기우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인간 심사가 아니겠는가.

세상사 하는 일이 더하기 빼기 하듯이 되겠느냐고 핑계로만 물고 싶겠지만 지금이 어디 핑계만 대고 있을 만큼 한가한 때인가.

요즘 효율점검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발 정밀점검이 강화되기를 기도드리고 싶은 심정이니 이 무슨 기우인가?

효율화로 인한 휴우증은 예상이 어렵지 않다. 화협점검의 필요성을 생각하면 이처럼 우리에게 큰 일은 없다. 업무량 증가로 어쩔수 없이 받아들인 대책이지만 점검이 있어야하는 존재 이유를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소방설비 점검만이 아니고 적정보험요율 산출, 적정 보험가액 산출, EML 산정, 위험관리 등등 종합 정밀 방화대책의 강구와 더불어 보험의 과학화, 합리화를 누구나 주장하고 있지만 욕구 만큼 실현과정이 뒤 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

왜 지지부진해야만 하는가?

인원을 늘리는거야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이라서 안되고 제도나 규정을 구미에 맞게 만들고, 없애고, 고치는 데도 제약의 요소가 많다보니 이 또한 쉽지 않고. 이러다 저러다 보니 아예 의욕도 슬며시 자취를 감추고 마니 매사가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당장의 당면문제는 효율화점검이 가져올지도 모를 후유증이다. 화협점검이 유사기관점검과 비교에서 올 수 있는 상대적인 필요성의 가치하락이다. 예상되는 질적 저하를 대형건물의 정밀점검 강화로 보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대형건물의 숫적 열세를 어찌랴? 그러면 선택의 길은 이미 주어진 것이다. 숫적으로 많은 효율점검물건에대한 그야말로 효율적인 관리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점검자가 할 수 있는 영역내에서는 점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자세를 다지는 방법 이외에는 뾰족한 묘안이 없다. 점검자는 성의를 가지고 물건 하나 하나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물량에 쫓기는 와중이라도 주변상황을 이끌어 나가려는 실행의지가 지속적으로 가시권내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

첫째, 유리하게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방재시험분야의 분발.

둘째, 이를 활용한 점검분야의 성숙.

셋째, 방재를 기틀로한 보험의 과학화이다.

현장점검의 필요성이 절대적이고 폭넓은 지지를 얻는다면 어떤 제도나 규정을 개선 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